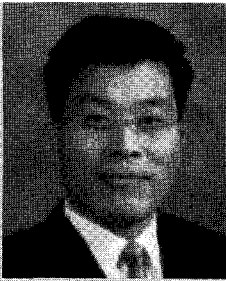


존경받는 환경인이 되고 싶다 고객 감동을 위한 OK일신에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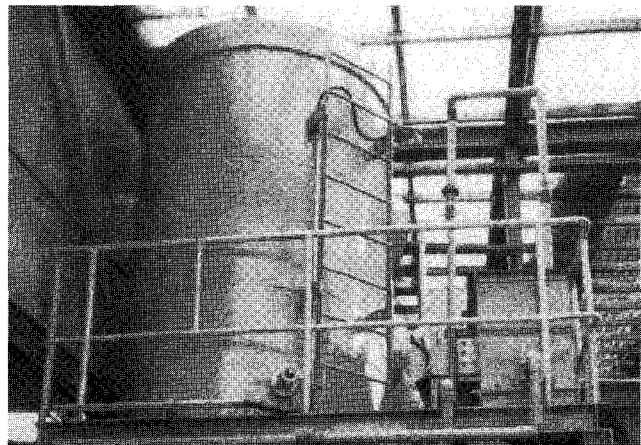
유 남 중
(주)일신종합환경 대표이사

21세기들어 환경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면서 환경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많은 환경설비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VOC설비 전문업체인 (주)일신종합환경(대표이사 유남중)이 포장업체에 적합한 환경설비를 제작,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89년 3월 일신엔지니어링으로 창업한 이래 올해로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일신종합환경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반에 걸친 설계시공, 처리장운전, 관리용역, 기술용역 및 장치 전문 회사로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설계시공 실적과 다년간 환경업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기술진을 보유하고 환경오염 방지업무를 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일신종합환경이 설치한 코우



▲ 건물과 조화를 이룬 호나경설비 설계시공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대기 분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야, 수질분야, 소음분야, 소각로분야, 엔지니어링분야로 종합 환경설비 업체이다.

대기분야에서는 CYCLONE, MULTICYCLONE, BAG FILTER, 각종 세정 집진시설, 유해가스 제거장치, 악취 제거장치, 공조시설, 전기 집진기를 취급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야에서는 농축연소 촉매시스템, 다단촉매 연소시스템, 실린더형 허니로터, 활성탄 흡착탑을 설계 시공하고 있다.

또 산업폐수 처리설비, 오수 처리설비, 정수 처리설비, 축산 폐수처리설비의 수질분야,

방음벽 및 방음실의 소음분야, 유동상 소각설비, 고정산 소각설비, 로터리 킬른 소각설비를 다루는 소각로 분야, 위의 각 분야 기본 및 상세 설계, 공사감리, 환경관련 기술자문 및 기술자료 지원, 환경인·허가 수행을 하는 엔지니어링 분야로 나누어 진다.

전직원이 환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은 기술고문, 기술영업, 시공팀, 설계팀, 제작 및 A/S팀, 관리팀으로 운영되며 이들 전문가의 축적된 기술력이 모아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1993년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등록(환경처), 1994년 군납 유자격업

체(국방부)로 선정되었고 1997년 세계 물의날에 환경부장관상수상, 2000년 환경의 날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이 회사가 설계 시공한 환경설비 업체인 롯데알미늄(주) 등에서 우수 거래업체로 감사장을 받는 등 그 공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포장업체와 관련이 많은 VOC 가스처리 설비 중 용제회수장치는 가볍고 적은 소요면적에 높은 가스 제거, 고품질 용제 회수,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적이면서 흡착공정 중 열축적이 최소화 되어 높은 안전성 유지, 흡착과 탈착 공정 사이의 전환이 단시간으

IL SHIN

로 자동운전되며 적은 충전량에 경량으로 운전보수가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약액 세정탑은 악취와 분진의 동시제거, 고온 부식성 가스 및 Mist제거 용이, 고효율 대용량 처리,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1/20로 줄어든다.

또한 활성탄 흡착탑은 유기용제에 의한 악취제거, 설치공간 극소화, 간편한 운전으로 사료제조 공정, 식품제조공정, 각종 석유화학 공정, 제지, 도장, 인쇄 공정, 기타 유기용제 및 악취발생 공정에 적합하다.

이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 선두그룹으로 도약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시장 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대다수 기업들이 환경설비 산업은 생산과 관련 없는 시설로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압박감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00년부터 VOC처리기술을 핵심기술로 발전시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환경기술이 앞선 선진국의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시켜 나가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내부 품질 요구치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해하며 또다시 이 회사를 찾아오고 있어 품질면에서 최고라 평가받고 있다.

실례로 이미 설치가 끝난 고객사를 방문하여 외관상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다시 설계, 자사 비용을 들여 설치해 주는 등 장인으로서의 의식이 투철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남중 사장은 “고객의 공장은 내공장이다란 생각으로 작업환경에 최적인 설계 및 설비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

니다”라며 이는 엔지니어의 자존심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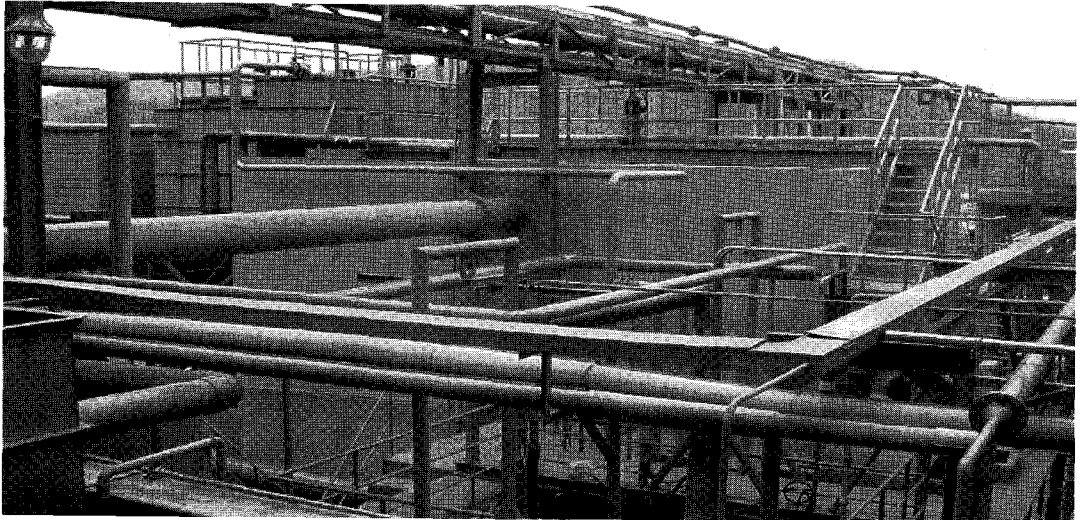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나 회사 전체로 보아도 일하는데 있어서는 완벽하다”는 유 사장은 “직원들의 직업의식과 환경에 대한 투철한 가치관은 어느 회사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유 사장은 올들어 엔지니어로서는 완벽하지만 경영자로서 회사의 변화에 힘쓰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반복작업을 하다보면 회사가 정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회사 발전 계획을 세우고 환경업체 선두로 나서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설비 시장은 머지 않아 포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설비를 통한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가 정체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급한 설비에 대해 유지 관리하는 서비



▲ 선풍식품 환경설비 준공사진

스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생각이나 실행 모두가 앞서야 됴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일신종합환경은 이제 수출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환경설비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선진국들이 선점해 시장을 형성했듯이 일신도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들에 설비를 수출해 시장을 선점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자금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임에도 정부등의 지원이 전무해 수출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이다.

유 사장은 품질로 승부한다는 생각이다. 가격에 대한 문제는 유저가 다시 인식해야 될 부분으로 무조건 저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저가 깊이 고려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환경분야는 1세대가 토목 등 다른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했다면 이제 2세대는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만큼 소명의식과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며 그는 '존경받는 환경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정리될 부분이 많다"며 "업체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지도에 중점을 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피력했다

인화를 제일로 삼고 있는 유 사장은 항상 고객입장에서 빈틈없는 일처리를 강조하고 보여지는 것보다 준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없으면 가정과 회사도 없다'는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OK일신의 앞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